LIGHTVIEW 인사이트 · AI · IPO

몸값을 깎아서라도 앤트로픽이 상장하는 이유

AI주가 무너진 주에도 앤트로픽은 상장을 미루지 않습니다.
2조 달러 기대가 1조 달러대로 내려와도 서두르는 이유는 신고서 속 청구서에 있습니다

글 **라이트뷰 운영자** **2026년 11월 10일** 11월 9일까지 공개된 서류·정보 기준

핵심 요약

1. **AI주가 무너진 주에도 상장은 그대로 갑니다.** 11월 5일 나스닥은 5.52%, 반도체지수는 12% 넘게 떨어졌고, 상장 몸값 기대는 8월 2조 달러 이상에서 1.2~1.3조 달러(일부 1.1조)까지 내려왔습니다. FT는 1.25~1.75조 달러를 전했습니다(모두 보도).
2. **첫째 이유는 8,954억 달러짜리 청구서입니다.** 앞으로 12개월에만 698억 달러, 2028~2030년에는 해마다 최근 4분기 매출보다 많은 돈을 컴퓨트 값으로 내야 합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약 1,467억 달러입니다.
3. **둘째, 비상장으로는 이만한 돈을 더 모으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사모 투자도 650억 달러였는데, 이번 공모는 800억~1,000억 달러로 보도됩니다. 오픈AI도 2027년 상장 준비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4. **몸값을 깎아도 남는 계산이 있습니다.** 보도된 가장 낮은 1조 달러도 몸값 숫자로는 5월 시리즈 H(9,650억 달러)보다 높고, 초기 투자자는 여전히 큰 이익입니다. 반대로 미루면 AI 업계 전체에 약세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5. **상장은 AI 업계의 첫 공개 시험대입니다.** 선두 AI 연구소의 손익이 분기마다 공개되고, 오픈AI 몸값과 클라우드·반도체 회사의 AI 매출을 가늠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LIGHTVIEW · 이 칼럼은 앤트로픽의 AI(Claude)를 활용해 만들었습니다. 분석 대상과 제작 도구를 만든 회사가 같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증권신고서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며 공모 참여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1 AI주가 무너진 그 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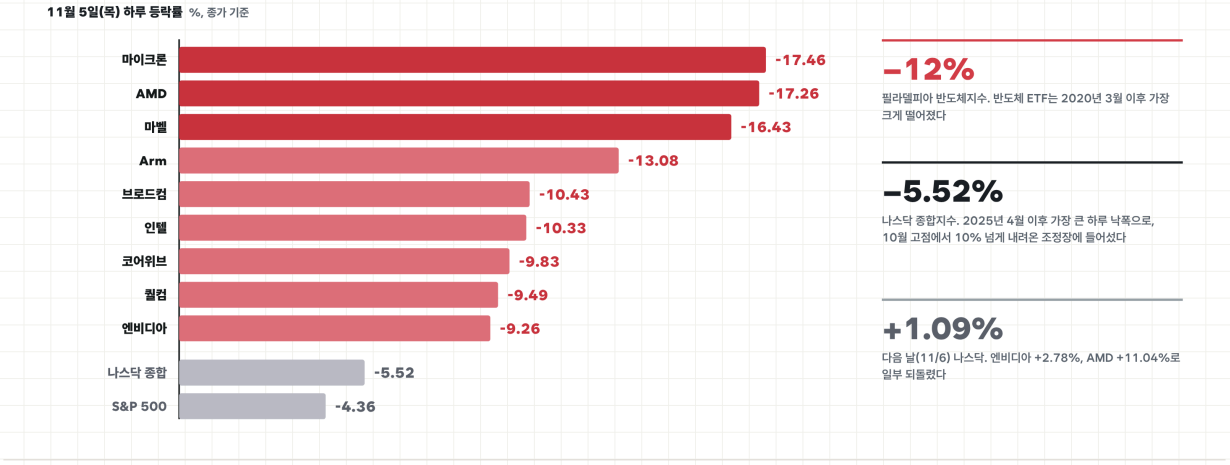
앤트로픽은 10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증권신고서(S-1)를 내고, 11월 2일 3분기 실적을 넣은 첫 수정본을 냈습니다. 상장 준비가 막바지에 이른 바로 그 주, AI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11월 5일(목) 나스닥 종합지수는 5.52% 떨어져 2025년 4월 이후 가장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 넘게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9.26%, AMD·마이크론·마벨은 16~17% 떨어졌습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가져가면서 데이터센터 규제와 건설 지연 우려가 커졌고, 같은 날 퀄컴이 부진한 실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 겹쳤습니다.

그림 1 11월 5일

AI 관련주가 하루 만에 최대 17% 무너졌다

중간선거 뒤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와 퀄컴 실적 부진이 겹쳤습니다. 나스닥은 2025년 4월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료: CNBC·폭스비즈니스(11.5·11.6 마감 보도), 액시오스(11.6), StockTitan(종가 집계, 2차) · 원인: 중간선거 뒤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퀄컴 실적 부진 등(보도) LIGHTVIEW

UBS는 2028년 예정된 데이터센터 증설분의 약 30%가 위험할 수 있다고 봤고, 시장이 이번 선거를 'AI 인프라가 더 느리고 더 비싸게 지어질 것'이라는 신호로 읽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보도). 다음 날 나스닥은 1.09% 올라 일부를 되돌렸지만, 여전히 10월 고점보다 10% 넘게 낮은 조정장에 있습니다. 1조 달러가 넘는 AI 회사의 몸값을 매기기에 좋은 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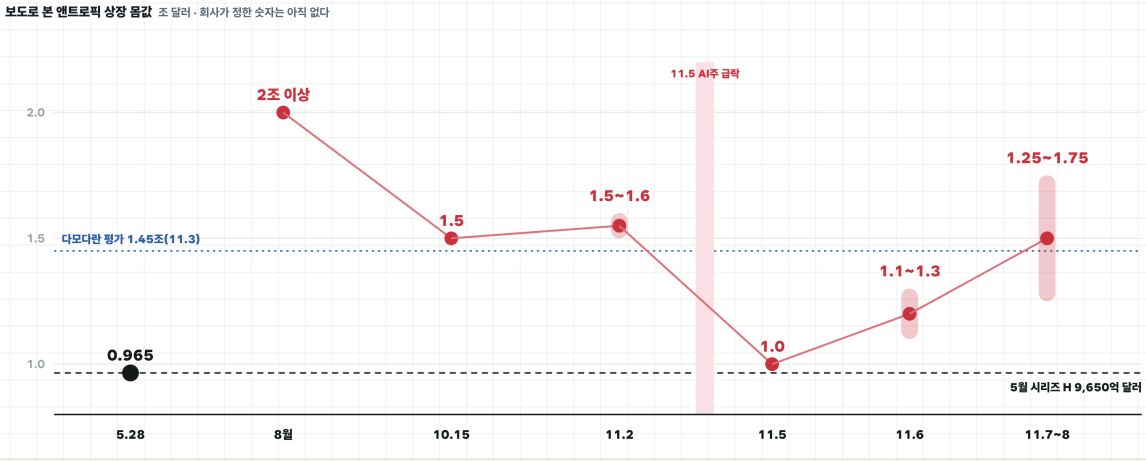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정치 환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급락 다음 날 오픈AI는 새 데이터센터의 전기·인프라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지역과의 비밀유지계약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을 내놨고, 메타 사장은 선거 뒤 데이터센터를 짓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보도). AI 회사가 쓰는 컴퓨트가 앞으로 더 늦게, 더 비싸게 공급될 수 있다는 뜻이고, 컴퓨트를 대량으로 사기로 약속한 앤트로픽에게는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앤트로픽의 몸값 기대도 함께 내려왔습니다. 8월 FT는 기존 투자자들이 2조 달러 이상을 기대한다고 전했고, NYT는 인수단이 '공모 1,000억 달러 이상'을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5일 로이터는 3분기 성장세가 2분기보다 느려졌다는 이유로 기대가 1.5조 달러로 낮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림 2 몸값 기대

2조 달러 기대가 1조 달러대로 내려왔다

8월 2조 달러 이상이던 기대가 11월 5일 급락 뒤 1.2~1.3조 달러(일부 1.1조)까지 낮아졌습니다. 몸값 숫자로는 가장 낮은 것도 5월 투자 때보다 높습니다.



자료: 앤트로픽 시리즈 H 발표(5.28), FT·NYT(8월), 로이터(10.15), WSJ(11.2·11.5), 블룸버그(11.6), FT(11.7~8, 시킹알파 경유), 다모다란 블로그(11.3) · 보도는 모두 익명 관계자 인용이며 요약본 경유 2차 포함 · 11.5 1조는 투자자 1명의 의견

LIGHTVIEW

급락 다음 날인 11월 6일 블룸버그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1.2~1.3조 달러(일부 1.1조)가 거론된다고 전했고, WSJ가 인용한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은 1조 달러 근처를 이야기했습니다. 회사는 아직 공모가 범위를 내놓지 않았고, 11월 9일 현재 가격을 넣은 수정 신고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숫자는 모두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입니다.

투자자들이 값을 낮춰 부르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장 속도입니다. 3분기 매출은 169.6억 달러로 2분기보다 47% 늘었지만, 2분기 매출이 1분기의 2.4배로 뛰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낮아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11월 5일 급락으로 AI 주식 전체의 눈높이가 내려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앤트로픽은 상장을 미루지 않고 있습니다. FT는 회사가 이미 기관투자자 대상 영업을 시작했고, 하락장에서도 더 낮은 몸값을 받아들일 뜻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된 일정은 추수감사절(11월 26일) 전 상장, 조달 규모는 800억~1,000억 달러입니다. 연기 가능성을 말한 투자자도 있었지만, 예측시장의 '12월 전 상장' 확률은 급락 때 약 50%까지 떨어졌다가 FT 보도 무렵 다시 80% 위로 올라왔습니다(칼시 기준).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몸값을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대로 깎으면서까지, 왜 지금 상장해야 할까요? 답은 세 가지입니다. 갚아야 할 청구서, 비상장으로는 닿지 않는 돈의 규모, 그리고 미루는 쪽이 더 비싸게 먹히는 계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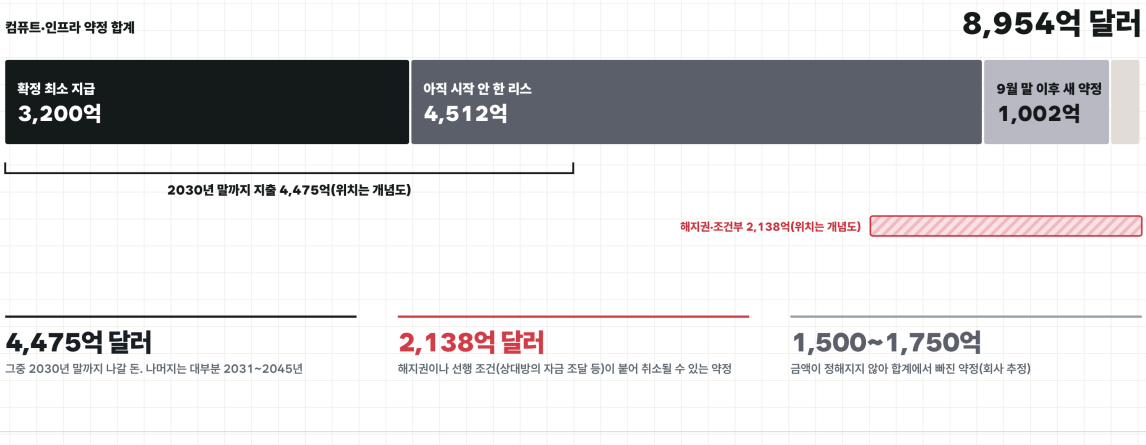
2 이유 ① 8,954억 달러짜리 청구서

첫 번째 답은 증권신고서 안에 있습니다. 앤트로픽이 앞으로 쓰기로 약속한 컴퓨트·인프라 비용은 모두 8,954억 달러입니다.

그림 3 컴퓨트 약정

앞으로 쓰기로 한 돈 8,954억 달러

절반가량은 2030년까지 나가고, 4분의 1가량은 해지권이나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4,475억 달러
그중 2030년 말까지 나갈 돈. 나머지는 대부분 2031~2045년

2,138억 달러
해지권이나 선행 조건(상대방의 자금 조달 등)이 붙어 취소될 수 있는 약정

1,500~1,750억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합계에서 빠진 약정(회사 추정)

자료: 앤트로픽 S-1/A(2026.11.2, 계약상 의무) · 9월 말 및 이후 맺은 약정 포함, 대부분 컴퓨트·인프라 · 처음 S-1(10.26)에는 합계가 빈칸이었음 · 구성은 원문 항목 기준, 기타는 합계와의 차액(합산 방식은 원문에 없음) LIGHTVIEW

이 가운데 4,475억 달러가 2030년 말까지 나가고, 앞으로 12개월에만 약 698억 달러를 내야 합니다. 회사는 위험 요인에서 이 약정이 실제로 쓰든 안 쓰든 돈을 내야 하는 '상당한 고정 의무'라고 적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들어오는 방식과 나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매출은 대부분 쓰는 만큼 내는 사용량 기반이라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지 않은데, 약정은 여러 해에 걸쳐 고정돼 있습니다.

회사는 과거에 필요한 컴퓨트를 '크게 과소평가해' 공급이 모자랐던 적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모자라면 비싼 단기 컴퓨트를 사야 하고(3분기에만 50억 달러), 넘치면 쓰지 않는 설비 값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신고서는 받아들일 만한 조건으로 추가 자본을 모으지 못하면 이 의무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상업 계약에서 부도가 나면 신용계약과 전환사채까지 한꺼번에 갚아야 할 수 있다는 '교차 부도' 조항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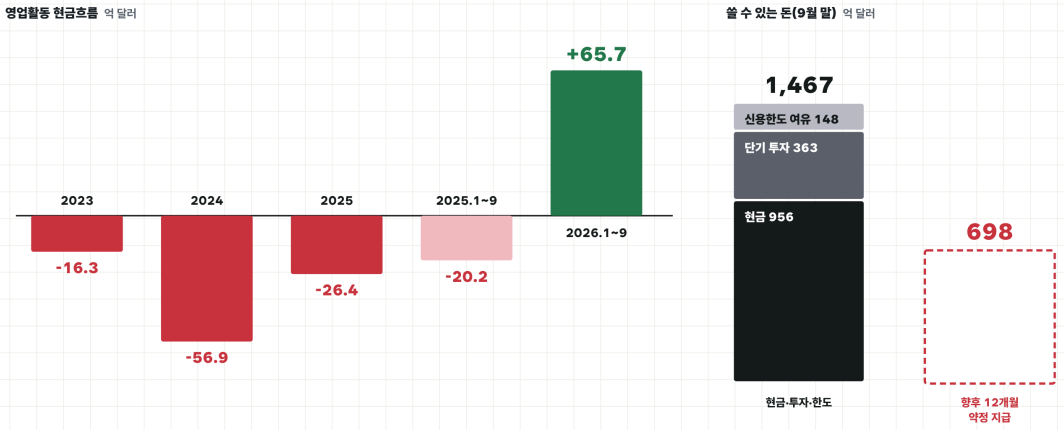
약정의 상대방도 신고서에 일부 드러납니다. 앤트로픽은 2026년 3월 브로드컴과 AI 가속기 장비 리스 계약을 맺었고, 브로드컴 등에 최대 420억 달러어치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계약도 함께 맺었습니다. 아마존에 발행한 전환사채도 원금 62억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컴퓨트를 대 주는 회사가 동시에 돈을 대는 투자자이기도 한 구조여서, 앤트로픽이 흔들리면 공급사 장부도 함께 흔들립니다.

당장 돈이 모자란 것은 아닙니다. 9월 말 쓸 수 있는 돈은 현금·단기 투자·신용한도를 합쳐 약 1,467억 달러이고, 1~9월 영업 현금흐름도 65.7억 달러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림 4 쓸 수 있는 돈

쓸 수 있는 돈은 1년 치 청구서의 두 배뿐

9월 말 현금·투자·신용한도는 약 1,467억 달러. 앞으로 12개월에 낼 약정만 698억 달러이고, 2028~2030년에는 확정 최소 지급만 해마다 440억~480억 달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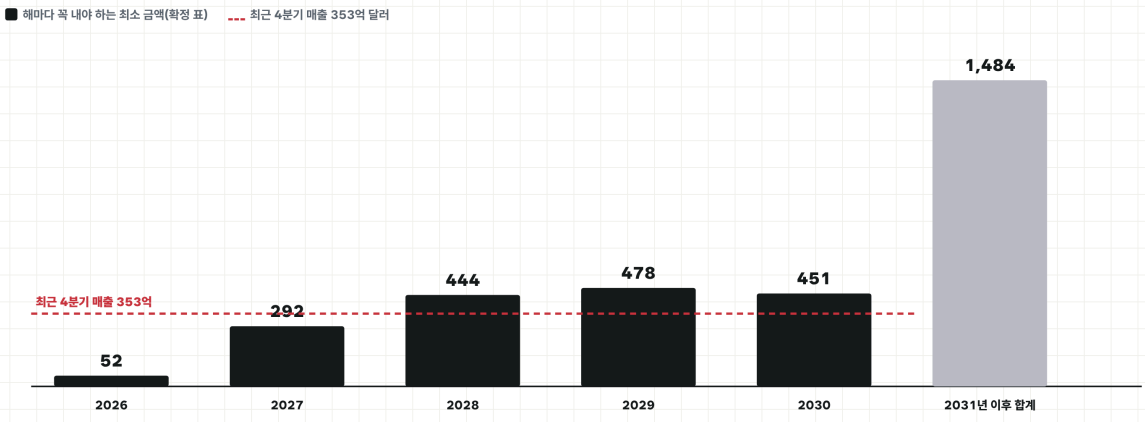


자료: 앤트로픽 S-1/A(2026.11.2, 현금흐름표·유동성, 약정 표) · 향후 12개월 약정 지급은 컴퓨트·인프라 약정 기준 LIGHTVIEW

그림 5 해마다 나갈 돈

2028~2030년 해마다 내야 할 최소 금액이 최근 4분기 매출을 넘는다

확정 최소 지급만 봐도 2028~2030년에 해마다 440억~480억 달러입니다. 매출이 계속 빠르게 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료: 앤트로픽 S-1/A(2026.11.2, 계약상 의무 표) · 단위 억 달러 · 2026년은 9월 말 이후 남은 기간 · 아직 시작 안 한 리스(4,512억)는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음 · 최근 4분기 매출(2025.4Q~2026.3Q)은 라이트뷰 합산 LIGHTVIEW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확정된 최소 지급액만 2028~2030년 해마다 440억~480억 달러로, 최근 4분기 매출(353억 달러)보다 많습니다. 매출이 지금처럼 빠르게 늘면 감당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한 번이라도 돈줄이 막히면 약정이 그대로 위험이 됩니다. 신고서가 밝힌 상장 목적도 '자본과 재무 유연성 확대'가 맨 앞에 있고, 순수입은 컴퓨트·인프라 투자와 인재 확보에 쓴다고 적었습니다. 상장은 이 청구서를 오래 감당할 돈줄을 만드는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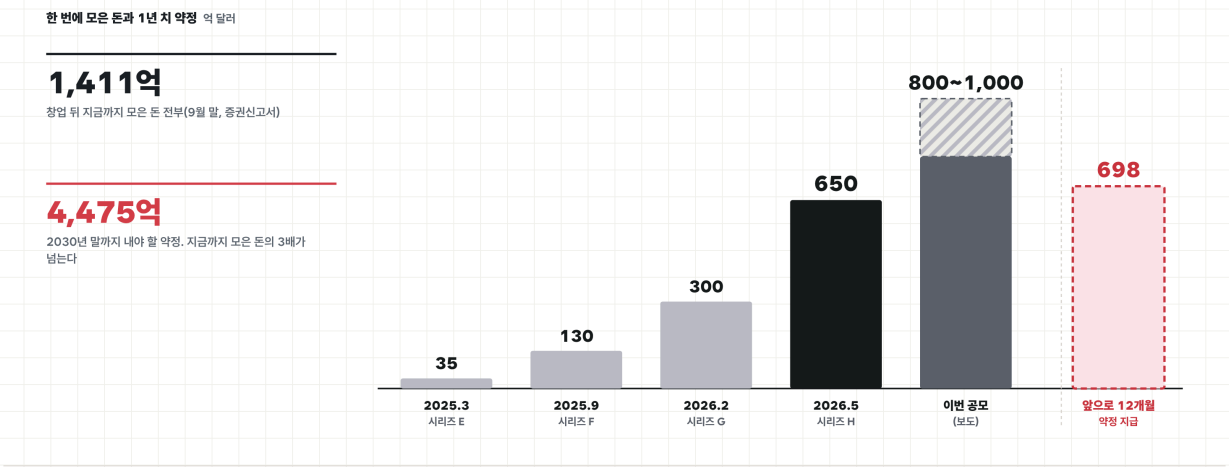
3 이유 ② 비상장으로는 닿지 않는 돈

두 번째 답은 돈의 규모입니다. 비상장 회사로는 더 이상 이만한 돈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그림 6 돈의 규모

가장 큰 사모 투자도 1년 치 약정에 못 미친다

시리즈 H 650억 달러는 앞으로 12개월 약정(698억 달러)보다 작습니다. 보도된 공모 규모 800억~1,000억 달러는 공개 시장에서만 가능한 크기입니다.



자료: 앤트로픽 투자 유치 발표(시리즈 E·F·H), Orrick(시리즈 G), 앤트로픽 S-1/A(조달 누계·약정), FT·WSJ 보도(공모 규모, 2차 · 서류에는 빈칸)

LIGHTVIEW

앤트로픽이 투자 라운드마다 모은 돈은 2025년 3월 35억 달러에서 9월 130억, 2026년 2월 300억, 5월 650억 달러로 불어났고, 지금까지 모은 돈은 모두 1,411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1년 치 약정만 698억 달러입니다. 한 번에 800억~1,000억 달러(기존 주주 매도분 포함, 회사 몫은 이보다 적음)를 모을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공개 시장뿐이고, 상장하면 그 뒤에도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모다란 교수도 상장 뒤 현금이 2,000억 달러를 넘게 된다는 점을 들어, AI 인프라 회사 코어위브와는 처지가 다르다고 봤습니다.

초대형 AI·기술 IPO, 앞서 간 회사와 뒤따르는 회사

회사	공모 규모	몸값	상황
스페이스X	약 750억 달러(추가 배정 포함 약 860억)	약 1.77조 달러(공모가 기준)	2026년 6월 상장, 첫날 +19%, 7월 공모가 아래로
앤트로픽	**800억~1,000억 달러(보도)**	**1.0~1.75조 달러(보도)**	**추수감사절 전 상장 목표(보도), 가격 범위 미공개**
오픈AI	—	마지막 사모 8,520억 달러(2차, 1.25조라는 보도도)	사장 "2027년 상장 준비 가능"(11.4)

경쟁도 시간을 재촉합니다. 오픈AI의 그레그 브록먼 사장은 11월 4일 2027년 상장 준비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먼저 상장하는 쪽이 'AI 대표주'를 찾는 투자자의 돈을 먼저 모으고 뒤에 오는 회사의 몸값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라이트뷰의 해석입니다. 실제로 앤트로픽이 부진하면 오픈AI의 상장 시기와 몸값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6월 상장한 스페이스X는 첫날 19% 올랐다가 한 달 만에 공모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도 이유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6월 말 직원들이 가진 스톡옵션의 내재가치는 982억 달러에 이르고, 상장을 조건으로 한 RSU는 상장해야 정산됩니다. 회사는 순수입 일부를 이 정산에 따른 세금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5,300명의 직원에게 상장은 보상이 현실이 되는 시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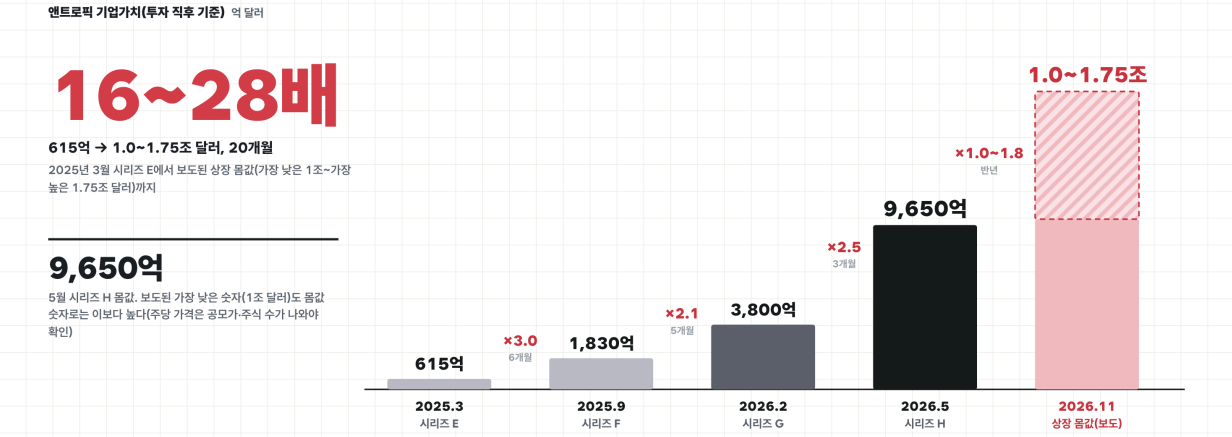
4 깎아도 남고, 미루면 더 잃는 계산

몸값을 2조에서 1조대로 깎으면 손해 아닐까요?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 7 몸값

가장 낮은 몸값도 5월 숫자보다는 높다

2025년 3월 615억 달러에서 5월 시리즈 H 9,650억 달러까지 14개월 만에 약 16배. 상장 몸값이 1조 달러로 내려가도 숫자로는 5월보다 높지만, 주당 가격은 공모 뒤에 확인됩니다.



자료: 앤트로픽 투자 유치 발표(시리즈 E 2025.3, 시리즈 F 2025.9, 시리즈 H 2026.5.28), Orrick(시리즈 G 2026.2), FT·WSJ·블룸버그 보도(상장 몸값, 2차 · 서류에는 없음) · 포스트머니 기준 · 배수·기간은 라이트뷰 계산

LIGHT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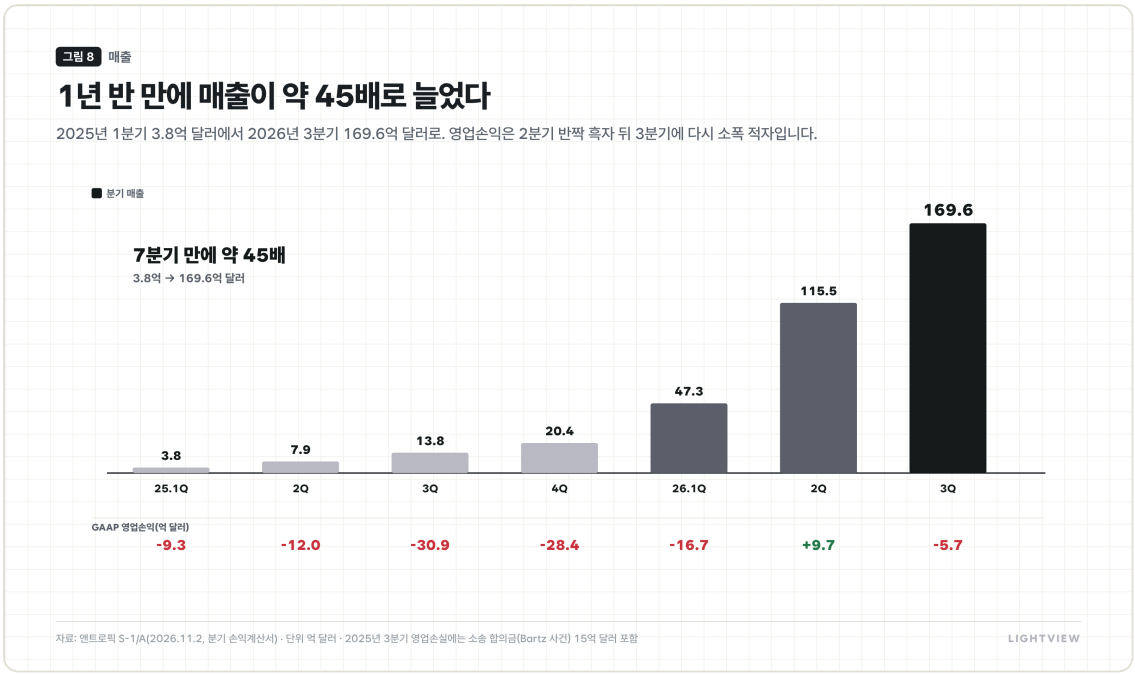
5월 시리즈 H 때 몸값은 9,650억 달러였습니다. 보도된 가장 낮은 숫자인 1조 달러도 몸값 숫자로는 이보다 높고, 2025년 3월 시리즈 E 때(615억 달러)의 16배가 넘습니다. 다만 상장 몸값에는 공모로 새로 들어오는 돈과 그사이 늘어난 주식이 섞여 있어, 주당 가격이 시리즈 H(주당 589.01달러)보다 높을지는 공모가와 주식 수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2분기에 앤트로픽 지분 평가 등으로 세전 534억 달러의 이익을 냈다는 집계도 있습니다(2차). 일찍 들어온 투자자일수록 몸값이 낮아져도 '얼마나 버느냐'가 줄어들 뿐입니다. 3분기 매출을 네 배 한 연환산 678억 달러로 따지면 1조 달러는 약 15배, 1.5조 달러는 약 22배입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이번 공모에는 회사가 새로 찍는 주식과 기존 주주가 파는 주식이 함께 나오고, 기존 주주 몫으로 팔린 돈은 회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값을 낮추면 같은 돈을 모으기 위해 회사가 더 많은 주식을 새로 내야 하고, 그만큼 기존 주주의 지분이 더 묽어집니다. 라이트뷰가 보기에 가장 큰 비용은 이 희석입니다. 다만 조달 규모를 줄이면 희석도 줄어드는데, 실제로 공모 규모가 1,0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주식을 파는 기존 주주에게는 낮은 가격 자체가 비용입니다.

반대로 미루는 쪽의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한 운용사 최고투자책임자는 이를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연기하면 AI 업계 전체에 약세 신호로 읽힐 수 있고, 강행한 뒤 부진해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반대로 연기하면 단기 몸값 위험은 피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2차). 앤트로픽은 시장이 더 나빠져 몸값이 더 내려갈 위험 쪽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가를 낮게 잡으면 첫날 주가가 오를 여지가 생기고, 그것이 다시 AI 주식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모다란 교수의 말처럼 IPO 주가는 '가치'가 아니라 그날 시장이 매기는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그는 10월 28일 글에서 자기 평가(1.475조 달러)보다 크게 높으면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11월 3일에는 평가를 1.45조 달러로 조금 낮췄습니다. 그의 글에 반응한 독자들의 집단 추정치는 약 1조 달러였는데, 시장이 지금 부르는 값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 상장이 AI 업계에 바꾸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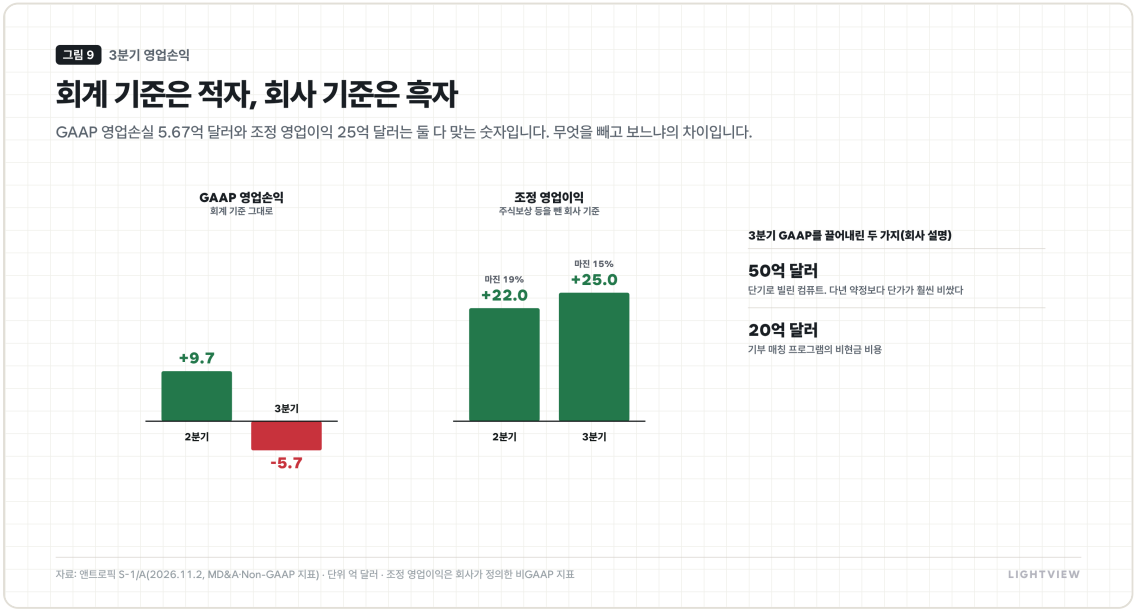
앤트로픽 상장은 한 회사의 일이 아닙니다. AI 업계 전체가 처음으로 공개 시험대에 오르는 일입니다.



첫째, 선두 AI 연구소의 손익이 분기마다 공개됩니다. 매출은 1년 반 만에 약 45배가 됐지만, 3분기 영업손익은 회계 기준(GAAP)으로 5.67억 달러 적자, 회사가 정한 조정 기준으로는 25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단기 컴퓨트를 얼마에 사느냐에 따라 손익이 크게 흔들린다는 사실이 이제 매 분기 숫자로 확인됩니다.

둘째, 몸값의 기준점이 생깁니다. 한 벤처 투자자는 앤트로픽이 AI의 '바로미터'가 되고 비상장 AI 회사 전체의 가치가 다시 매겨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상장이 부진하면 오픈AI의 상장 시기와 몸값도 다시 검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셋째, 공급망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8,954억 달러의 약정은 거꾸로 보면 클라우드·반도체 회사들의 미래 매출입니다. 앞서 본 브로드컴(장비 계약·최대 420억 달러 전환사채 발행 계약)과 아마존에 더해, 구글은 시리즈 H에 100억 달러를 넣었습니다. 앤트로픽 주가는 이들 회사의 AI 매출이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 주는 지표가 됩니다. 한 운용사 대표는 올해 남은 기간 중요한 것은 앤트로픽 IPO뿐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11월 17일입니다.



6 누구에게 좋고, 누구에게 부담인가

같은 상장이라도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득실이 다릅니다.

시장이 걱정하는 장면도 분명합니다. 한 벤처 투자자는 앤트로픽 상장이 부진하면 AI 투자 전체가 '모래성'처럼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장기 수요가 모자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1990년대 광케이블 과잉 투자에 빗댔습니다. 한편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이 적어도 기존 기대의 아래쪽에서 가격이 정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모가가 얼마나 낮게 정해지느냐가 상장의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입장	좋은 점	부담
회사	**약정을 오래 감당할 자본 창구, 직원 보상 정산과 인재 유지**	**분기 실적 압박, 약정과 매출 속도의 어긋남이 그대로 공개**
기존 투자자	**1조 달러여도 몸값 숫자로는 5월 위, 초기 투자자는 큰 이익**	**몸값이 낮게 정해지면 장부상 평가이익의 기준도 낮아짐**
공모 투자자	**하락장 덕에 낮은 몸값에 들어갈 기회, 3분기 매출 1년 새 12배**	**창업자 의결권 50.1%·공익법인 구조, 약정·교차 부도 위험, 2027년 락업 해제 물량**
AI 업계	**AI 수익성이 투명해지고 몸값 기준점이 생김**	**부진하면 AI 투자 전반이 '모래성'처럼 보일 위험(분석가 의견)**

다음에 확인할 것

언제	무엇을
이번 주(보도)	로드쇼 시작, 공모가 범위·주식 수를 넣은 수정 신고서 → 실제 몸값과 조달 규모
11월 17일	엔비디아 실적 — AI 주식 분위기와 공모 수요
추수감사절(11.26) 전(보도)	상장일과 첫 거래 가격, 공모가 대비 등락
2027년	오픈AI 상장 준비, 앤트로픽 락업 해제(실적 발표 기준 또는 180일·365일)

정리하면, 앤트로픽이 몸값을 깎으면서까지 상장을 서두르는 것은 시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기다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앞으로 1년에만 약 700억 달러를 내야 하는 청구서를 감당하려면 공개 시장이라는 돈줄이 필요하고, 경쟁자가 줄을 서기 전에 그 문을 열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시장이 그 청구서를 보고도 1조 달러 넘는 값을 매겨 줄지이고, 그 답은 곧 나올 공모가 범위가 처음으로 보여 줄 것입니다.

+ 더 알아 둘 용어와 출처

용어

S-1 — 미국 상장을 위해 SEC에 내는 증권신고서. 수정본은 S-1/A.

포스트머니 — 투자금이 들어온 직후 기준의 회사 가치.

교차 부도 — 한 계약의 부도가 다른 빚까지 바로 갚게 만드는 조항.

락업(보호예수) — 상장 뒤 일정 기간 기존 주주가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한 약속.

로드쇼 — 상장 전 기관투자자를 만나 공모 수요를 모으는 설명회.

컴퓨트 약정 — 반도체·데이터센터 연산 능력을 정해진 기간 사겠다는 계약.

RSU — 조건을 채우면 주식으로 받는 직원 보상. 앤트로픽은 상장이 조건.

조정 영업이익 — 주식보상 등 일부 비용을 뺀 회사 기준 영업이익(비GAAP).

증권신고서와 회사 발표

앤트로픽 S-1(2026.10.26) · S-1/A 1차 수정(2026.11.2, 자금 사용 목적·위험 요인·계약상 의무 원문) — SEC EDGAR, 제출 목록 11.9 확인(가격 범위 수정본 없음) · 투자 유치 발표: 시리즈 E(2025.3)·F(2025.9)·H(2026.5.28), 시리즈 G는 Orrick 발표(2026.2)

시장·보도·분석

CNBC·폭스비즈니스(11.5·11.6 마감), 액시오스(11.6), StockTitan(종가 집계, 2차) · FT·NYT(8월), 로이터(10.15), WSJ(11.2·11.5), 블룸버그(11.6), FT(11.7~8, 시킹알파 경유) — 일부는 요약본 경유 2차 · CNBC(10.26·11.6), 야후파이낸스(11.6~8) · 테크크런치(11.5, 브록먼 발언) · 스페이스X IPO: CNBC·CBS(6월), 위키백과(2차) · 다모다란 블로그(10.28·11.3)

약정·현금·자금 사용 목적·위험 요인은 S-1/A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상장 몸값·조달 규모·일정·오픈AI 몸값·직원 옵션 가치·아마존 이익은 서류에 없는 보도이며 일부는 2차 집계입니다. 매출 배수는 라이트뷰 계산입니다. 내용은 2026년 11월 9일까지 공개된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관계 안내 · 이 칼럼은 운영자가 주제와 분석 방향을 정하고 최종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자료 조사, 초안 작성, 인포그래픽 제작에는 앤트로픽의 AI(Claude)를 활용했습니다. 분석 대상 회사가 제작 도구를 만든 회사이므로, 긍정·부정 근거를 같은 기준으로 다루고, 서류 숫자는 원문과 대조했으며 보도 숫자는 출처를 밝혔습니다.